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0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소 선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추가 공모사업에 8개 법인에서 14개 세부사업(교육컨설팅 8개법인, 시설장비 4개법인, 사업다각화 2개법인)이 선정되어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타작물 생산 들녘경영체 및 논 타작물 재배단지화 조성사업 참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교육컨설팅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사업다각화(풍가공시설설비, 선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재배농가의 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제시의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로 자리잡은 논콩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시는 올해 논콩을 3,550ha 재배하여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약 90.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콩 판매대금으로 약 484.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향군인회 故 안영권 하사 추모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는 지난 6일 제65주년 현충일을 맞아 관내 기관 및 보훈단체장 등과 함께 순동 군경묘지, 성산공원 충혼비를 참배하고, 재향군인회 및 여성회 임원들과 함께, 우리고장 출신 호국영웅인 백마고지 육탄삼용사 고안영권 하사의 전공기념비를 찾아 헌화 및 참배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고인의 넋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고인이 복무했던 94년대의 사단장의 관심과 배려로 추념행사에 조화 및 부대기를 게양하여 고인을 추모하였다.

고안영권 하사 전공기념비는 금산사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재향군인회에서는 해마다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도정비사업 순항

3년째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6단계 정비사업' 진행... 이서·용진 교차로 개선 박차

완주군의 관내 국도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도와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도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6단계 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다.

익산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주지역 내 국도 개선사업은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 분야에 총 16개소로 총 529억원을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한다.

사업추진 3년차인 올해 발주·추진하는 사업은 교차로 개선과 오르막차

로 확보, 생태통로 설치 및 노면 보수 개선 등 14개소에 15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선, 병목지점인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의 이서교차로의 경우 총사업비 46억7천400만원을 투입해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올해만 8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위험도로인 완주군 용진면 용진교차로는 15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전액 투입해 선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군

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이 대폭 증진되고, 교통 편의와 기초생활 인프라 보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안전의 제일 요건 중 하나는 기존 국도의 위험요인 및 차량 이용자의 도로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국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과 지속적인 협의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허전 부시장은 조성 중인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장행정으로 청년들과 소통

김제시 허전 부시장,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 조성 현장점검

김제시 허전 부시장이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 조성현장 및 청년창업가 격려 방문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 5일 허전 부시장은 조성 중인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아리' 사업 지원으로 창업한 사업장 중 4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는 오는 9월 개관 예정으로 청년들의 열정을 담아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신동동 494-31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15㎡ 규모로 조성 추진 중이며, 1층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으로서 취·창업 정보 교류 및 교육,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고, 2층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아이디어 구상, 창업 아이템 홍보 준비를 위한 회의실과 스튜디오 등을 통해 윈스톤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아리'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포럼 교육 및 체험을 아이টে으로 창업에 성공한 이랑고랑 황유진(36) 대표는 "김제시의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전 부시장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의 복합기능을 수행해나갈 김제청년공간 E :DA(이디)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창업가 '아리'의 지역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년공간 정책 구현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에 '구슬땀'

여수해지구 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김제시가 재해예방사업인 여수해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김제역지구(2019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 연결한 지역으로서 이를 고려하였을때 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김제역지구 일원은 태풍과 집중호우시 매년 침수됨에 따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총309억원을 확보하므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김제시장은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김제역지구와 연결한 여수해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 필요성을 설명 및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일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역과



김제시가 재해예방사업인 여수해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해 주변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생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해소되고 시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렴 프로젝트, '청렴 아침방송' 시작

김제시는 6월부터 조직구성원간 청렴의식을 공유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청렴 아침방송을 시작했다.

청렴 아침방송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업무 시작 전 2~3분 동안 청내 방송을 통해 청렴 명언 및 일화, 청렴 실천 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직원 모두에게 청렴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청렴에 대한 공감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2020년 청렴 트렌드에 맞게 전문 성우를 섭외하여 청렴방송 CD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청렴한 마음,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주고 스스로 청렴한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도와주는 청렴 아침방송은 김제시가 운영하

는 청렴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 교육이 일상화 되어야 한다"며 "딱딱한 교육의 이미지를 벗어난 청렴 아침방송을 통해 편안하고 쉽게 청렴을 느끼고 소통한다면 우리 시 청렴 이미지 제고 뿐만아니라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청년마을학교 프로그램 강사 모집

완주군이 청년들이 가르치고, 청년들이 배우는 '청년마을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을 통한 청년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마을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청년강사를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완주군의 청년마을학교는 강사와 학습자가 모두 완주군 청년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육강좌를 활성화시켜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 기반 및 자립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청년강사 모집분야는 취·창업, 진로 탐색, 자기개발, 경제, 문화, 예술, 어학, 교양, 체험 분야이며, 친목도모나 동호회 활동, 단순 체육강좌, 종교 및 정치성 강좌, 사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강좌는 강사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으로는 완주군에 활동기반

및 생활고자 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강의 관련된 교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6개월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청년이다.

완주군은 청년강사 풀을 구성한 뒤 각각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 강좌를 청년거점공간인 '플래닛완주'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강사 모집기간은 7월말까지이며 지원서는 완주군청 6층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강사로 섭외된 청년에게는 강좌당 최대 10시간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청년마을학교 사업의 '이임터치' 프로그램 운영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다음달부터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강사와 학습자가 청년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경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해 청년이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